**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판단 테스트**

**김민지**

* 결과

http://moralmachine.mit.edu/hl/kr/results/862965800

가장 많이 살려 준 캐릭터는 여성이고, 가장 많이 희생 된 캐릭터는 노숙자이다. 선택을 함에 있어 희생자 숫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승객 보호 선호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더 높았지만 법규 준수 여부는 정확하게 중립적이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전적으로 여자를 선택했고, 사람과 강아지가 있다면 전적으로 사람을 선택했다. 비만인과 건강인은 선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유년과 노년이 있을 때는 유년을, 사회적 가치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서는 높은 사람을 택했다.

* 개인적인 해석

처음에 어떤 선택을 내리든 결국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가정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내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주로 아이와 여자를 많이 살리게 될 것이다. 노인은 유년기 아이들에 비해 비교적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삶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살아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범죄자와 의사 중 택해야 할 때는 사회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운동선수와 평범한 사람 사이에서는 남자와 여자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해서 조금 더 살 가능성이 높은 운동선수 쪽으로 차가 가도록 했다. 위와 같이 진행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범죄자를 가장 많이 희생시켰으며, 여성을 가장 많이 살리게 되었다.

**여다연**

* 결과

http://moralmachine.mit.edu/hl/kr/results/-694178316

가장 많이 살려 준 캐릭터는 노인이고, 가장 많이 희생 된 캐릭터는 노숙자이다. 희생자의 숫자와 승객의 안전 여부는 모두 중립으로 어느 한쪽으로 중요도가 치중되지 않았다. 법규 준수 여부는 다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균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개입에 대한 회피 선호도는 매우 중요하게 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거의 방향을 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성을, 연령선호도로는 노인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택했다. 건강인과 비만인 사이에서는 건강인을, 사회적 가치에 따른 의사와 도둑 사이에서는 의사를 전적으로 선택했다.

* 개인적인 해석

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초점을 두고 선택을 했다. 따라서 인공기능이 선택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 주체가 됨으로써 만약 사람이 운전을 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에 대해 고민했다. 만약 승객과 보행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쳐야 한다면, 운전자는 다급한 상황에서 상대를 고려하기 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위할 것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승객을 위한 선택을 내렸다. 두 그룹의 보행자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경우라면, 사람의 가치를 따져 누구를 죽일지 선택하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과 같다는 생각 하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을 택했다. 따라서 보행자가 누구인지 승객이 누구인지, 그들의 성별, 종, 나이, 사회적 가치 등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고, 승객과 보행자인지의 여부와 자동차의 방향만을 보고 선택했다.

**한아름**

* 결과

http://moralmachine.mit.edu/hl/kr/results/-1649676418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는 여성이고, 가장 많이 희생시킨 캐릭터는 노인이다. 희생자의 수는 중요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승객 보호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따라서 승객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승객을 포함한 전체의 생명에 집중해서 설문에 응했다. 법규 준수의 여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들의 평균과 정확히 일치한다. 개입에 대한 회피 선호도는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며,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는 전적으로 여성을, 인간과 강아지가 있을 때는 전적으로 인간을 선택했다. 유년과 노인이 있을 때는 유년 쪽을 택하는 편이며, 건강인과 비만인이 있을 때는 전적으로 비만인을 택했다.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의사와 범죄자가 있을 경우 또한 전적으로 의사를 선택했다.

* 개인적인 해석

상황이 전부 비슷해서 한 쪽을 선택하기가 매우 애매했지만 주로 나이가 어릴수록, 도덕적 법규를 지킨 경우일수록 살려두고자 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선택을 내릴 때 나이와 도덕적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내리게 되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어린 유년기의 아이들은 미래에 커서 국가를 위해 일할 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법규를 지키는 사람들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나는 사회적인 가치를 다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라고 인식 되었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달려온 무인자동차 속의 사람들이 대신 희생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둑이나 신호등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키게 되었지만, 몸의 비만여부나 성별의 여부 등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